

양계 와

꽃 재배

김 광 래

〈경희대학교수〉

1. 서 론

돼지 없는 집 가난 못면한다라면 유축농업이라는 어려운 말 이전의 이야기로서 가축 없는 농업은 현대 농업과는 더욱 먼 이야기라고 하겠다.

닭과 꽃은 모두가 우리가 농민의 본업 혹은 부업으로 발전 육성되었음을 주지의 사실이다. 꽃이라면 우리의 바쁜 생활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사치품의 일환이라고 믿어지나 업(業)으로서의 가치면에서는 닭과 같이 집약적 경영관리라는 특수성을 지닌바와 같이 동일성(同一性)을 지니고 있음이 틀림없고 또 한문화의 발달과 함께 급진진 하였음도 선진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목전(目前)에서 찾을 수 있는 현실이다.

필자는 상기한 바 집약농업이란 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어 볼까 한다.

(1) 분류(分類)의 이용

닭의 사육과정 중 부산물인 분류(分類)를 꽃의 촉성재배에 필요한 온도 유지에 유효하게 이용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계분이 가장 싼 1월 상중순경 또는 2~3월경 온상을 설치하고 발열물로서 계분을 밟아 넣고 클라디오라스나 빼합 등을 심어 4~6월에 절화(切花)하여 시장화한다면(평당 230~280본, 1본당 금년 80~100 원) 꽃이 없는 때이기 때문에 고가(高價)를 받을 수 있고 밟아 넣었던 계분도 이용량이 많은 시기이면 완숙된 것이므로 처분이 용이하다.

(2) 좁은 면적에서의 값진 꽃 재배

좁은 면적에 고가이면서 거름을 많이 요하는 꽃을 심어 평당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즉 고무나무(1년생 200~300원, 평당 노지(露地)에서 50~60본을 심는다)와 같은 종류를 밭에 심고 충분히 계분을 시비하면 적은 면적에서 많은 이익을 큰 기술이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이다.

(3) 건물의 일부 면적 개조로 다수익을 올리는데 관해서 필자는 지난 봄 농촌지도소의 강습회에서 강연을 하여 달라기에 어느 농촌에 간 일이 있다. 그곳은 양계촌이었다. 그러나 지도소 요원의 말이 그곳에는 특수 채소나 꽃 재배를 닭과 함께 장려하면서 처리용자로 비닐하우스를 짓어 주었다고 했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 내부에는 꽃이나 채소가 아닌 닭(병아리)이 훌륭히 자라고 있음을 보았다. 채소와 꽃은 특수재배법을 몰라서 못한다고 했다.

새로운 공부를 하였다고 믿으며 당시 이후 필자의 연구를 이곳에 일부 소개하여 보면 닭사육 중 초생추부터 중추기까지의 육추는 모든 병해 방지(백혈병, 콕시듐병, 마렉병 등)를 위하여 일반 사육장과 분리하여 육추하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이므로 생략하며 이 분리 육추장을 비닐하우스를 설치 이용하고 육추 이후 본 사육장에 닭을 옮긴 후 국화와 같은 재배가 용이한 꽃을 심으면 어느 땅에서 보다도 꽃은 잘 자라고 병해 방지도 될 것이다.

더우기 밭에 고무나무를 심었을 경우는 가을에 육추장으로 이용하면 비닐하우스에 캐어넣었다가 겨우내 판매하고 이른 봄 육추장으로 다시

봄을 맞는다

이용한다면 더욱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노동력의 효율적인 이용이 될 것이다.

2. 문 제 점

(1) 경영비의 증가

일반 사육장과 육추장을 분리 설치하면 경영비가 많이 듦다. 그러나 비닐하우스 건축비는 간이식으로 할 경우 평당 500~1,000원이면 훌륭히 지을 수 있으니, 50,000~100,000원이면 100평짜리로 5~6년을 쓸 수 있는 겸용 건물이 될 것이니 당년에 설치비 이상의 수익이 있다고 본다.

(2) 구조상의 난점

온도와 습도의 조절과 평사라야 된다는 점이 있으나 온 습도의 조절을 위한 환기구 설치를 천정(天井)과 양측면에 배치하도록 하고 평사육 추에 대한 일은 면적과 관계있는 일이겠으나 기왕에 온실 겸용으로서 가치를 논한다면 큰 문제 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3) 노동력과 노력비

닭을 사육하는 노력의 1/10만 들여도 충분히 재배 할 수 있는 고무나무나 영산홍과 같은 나무를 심거나 또 사육중 여가를 적절히 이용하여도 수백평의 관리가 충분하다.

그러나 국화와 같이 손질이 많이 가는 종류는 잡부(雜夫)를 이용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4) 고도의 기술을 요할 것으로 생각할 텐지 모르지만 닭을 사육하는데 요하는 기술보다도 쉽게 재배 할 수 있는 종류가 많으니 품종선택 만 잘 한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은 닭에서 얻은 풍부한 비료로 여가의 토지 노동력을 적절히 안배 조절한다면 보다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3. 재배방법

(1) 계분을 발열재료로 한 온상에 클라디오라스, 백합 등의 재배

2월 상중순경 온상을 다음과 같이파고 계분을 밟아 넣는다. 온상의 설치장소는 남향밭이로서 벌이 잘 들고 바람이 적은 곳으로 작업에 불편

이 없는 곳을 택한다.

더우기 지하수가 높은 지대라면 온상에 물이 나지 않는 곳을 선택한다.

온상의 폭과 길이는 작업상 폭 1.5m 길이 4.2m 내외로 하고 창문의 크기는 폭 0.9m 길이 1.55m 내외로 하면 이상적이다.

계분을 밟아 넣을 때는 너무 굳게 밟거나 물을 많이 주면서 밟으면 오랜 기간이 지나야 열이 나며 너무 밟지 않고 물이 적으면 열은 일찍 나지만 발열기간이 짧아지고 계분만 넣으면 발열량이 너무 많으니 발흙을 넣는 일을 잊어서는 안된다.

밟아넣는 일이 끝나면 창문을 닫고 4~5일 거쳐으로 덮어두었다가 30~40°C의 열이 나면 발흙을 20~25cm 넣고 클라디오라스는 7~8cm 간격으로 백합은 8~9cm 간격으로 충분히 물을 준 다음 심고 1주일 이후면 생육하여 흙 밖으로 자라나오게 되나 광선을 충분히 받도록 관리한다.

온도가 30°C 이상 높아지면 창문을 조금 반쳐서 통풍이 되도록 하며 밟아 넣은 온도가 너무 많은 (50°C 이상) 열이 날때는 온상의 모퉁이마다 구멍을 뚫고 냉수를 넣어주는 일로 온도를 조절한다. 때때로 이 온상에 2월 상순경 고무나무를 꺾꽂이하기도 한다.

고무나무는 한눈꽃이를 하는데 한 눈에 15원 내외하고 뿌리가 내리면 45~50원 간다. 이때 온상에는 발흙 대신 모래를 넣고 다음과 같이 꺾꽂이 한다.

큰 가지에서 눈 하나 일 하나를 붙여 예리한 칼로 자른다. 자르면 흰 진이 나오므로 물에 넣어 닦는다. 잘 닦은 다음 찰흙(거름기가 없는 빨간 흙)이나 수태로 단자를 만들어 붙이고 일은 안으로 말아 잡아매고 모래에 눈이 묻히지 않도록 배지 꽂아 나간다.

뿌리가 20~30일 후 내리면 다른 온상에 옮겨 심었다가 서리가 오지 않고 지온(地溫)이 좀 높아지기 시작하는 5월상순경 밭에 계분을 충분히 주고 같아 엎은 다음 30cm 간격으로 밀식한다. 재배하는동안 베마르지 않도록 때때로 관수를 하고 6월말부터는 왕성하게 자라므로 15일에 1

봄을 맞는다

회 정도 완숙 계분(충분히 썩은 것)을 주면 1년에 1m 이상 자라게 된다.

그 순서는

- ① 물로 진을 닦는다.
- ② 잎을 안으로 말고 잡아낸다.
- 진흙 또는 수태로 단자를 부친다.

보래에 눈이 묻히지 않도록 베개 끓는다.

육추용 및 꽃재배 겸용 비닐하우스 짓는데 쓰이는 재료는 콘센트나 철주를 이용하여 반원형(턴넬)식으로 영구적인 것과 각목이나 변목(폭 3cm, 두께 5mm)을 이용하여 쌓을 값으로 지을 수도 있다. 각자 토지의 사정과 경영비를 감안하여 설치해야 한다.

비닐하우스를 지을 때 양측 벽은 콘크리트 부록을 3~4매 쌓는다.

중심부에 통로를 내고 양측에 꽃을 심는다.

편편한 마당에 도면을 그려 놓고 동일한 모양으로 틀을 필요량만큼 짠다. 필요량이 준비되었으면 정지된 평에 40~45cm 간격으로 일직 선

상에 동일 깊이로 둑어 나가면 홀륭한 집이 된다.

기틀을 마련한 다음 겨울철 눈(雪)의 해를 입지 않도록 상낭목(上梁木)을 대고 기둥을 2.5~3치 각목으로 설치하면 여름철 장마기에는 거두어 두었다가 필요한 가을 또는 봄에 다시 연결하여 설치하면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다.

봄에는 육추용으로, 가을에는 꽃재배용으로 이용한다. 천정에는 3~4개 걸러(서까래) 천창을 설치하고 측벽에도 3~4칸 걸러 창문을 설치하는 것이 좋으나 옆창으로 병아리가 나가지 않도록 철망등을 설치한다

지하로는 부록 1장 정도 깊이로 묻히도록 설치한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해 보았으나 여가를 통하여, 혹은 원예에 취미가 있는 양계가는 주어진 환경과 시설을 이용하여 적은 자본으로 실행 할 수 있는 것이니 새봄을 맞아 푸른 화초와 활발한 계사를 한데 묶어 아름다운 농장을 건설해 보는 계획도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

